

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5/2/16

2015년 한국인의 설 풍경

2015년도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. 새해 달력을 펼치며 결심했던 일이 작심삼일로 끝났거나 계획이 미흡했다면 다가오는 구정, 설날을 기약할 일입니다. 올해 설날은 2월 19일 목요일이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연휴를 즐길 수 있는데요.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낼까요?

한국갤럽이 지난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,003명에게 이번 설 연휴 고향 방문 계획 여부, 초등/중학생에게 줄 세뱃돈으로 적정한 금액은 얼마로 보는지, 설에 한복을 입는지, 가족/친지들과 하는 설 놀이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.

조사 개요

1. 조사기간: 2014년 2월 3~5일(3일간)
2. 표본추출: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
3. 응답방식: 전화조사원 인터뷰
(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)
4. 조사대상: 전국의 만 19세 이상 1,003명
5. 표본오차: $\pm 3.1\%$ 포인트(95% 신뢰수준)
6. 응답률: 18%(총 통화 5,509명 중 1,003명 응답 완료)
7. 의뢰처: 한국갤럽 자체 조사

주요 결과

- ‘설에 1박 이상 일정으로 고향 방문 계획 있다’ 40% - 작년과 비슷
- 초등학생에게 줄 세뱃돈으로는 ‘1만원’이 적당 53% (평균 17,100원)
- 중학생은 ‘3만원’ 28%, ‘5만원’ 25%, ‘2만원’ 22% (평균 32,900원)
- ‘작년 설에 한복 입었다’ 10% - 60대 이상 18% vs. 30대 3%
- 설 명절에 가족과 하는 놀이: ‘윷놀이’ 32%, ‘고스톱’ 19%
- 응답자의 절반(54%)은 가족, 친지와 함께한 놀이 없어
- ‘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’: 58%
- 50대, 자영업자, 블루칼라, 주부, 생활수준-하층에서 ‘즐겁지 않다’ 40% 이상
- ‘즐겁지 않다’ 응답, 2006년 대비 남성은 변함 없고(31%) 여성은 감소(51%→3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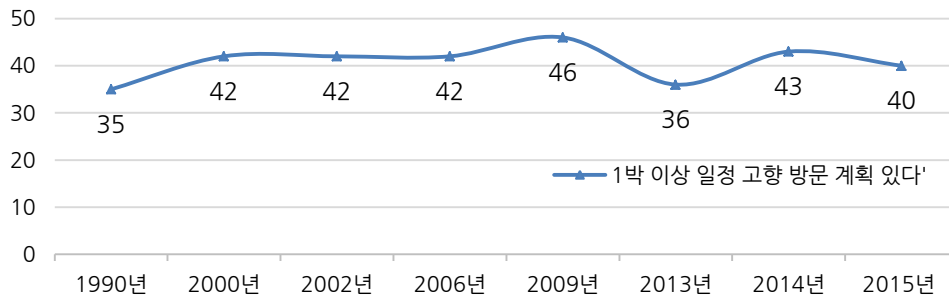
‘설에 1박 이상 일정으로 고향 방문 계획 있다’ 40% - 작년과 비슷

한국갤럽이 지난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,003명에게 설 연휴를 맞아 1박 이상 일정으로 고향을 방문하거나 관광 여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 묻은 결과 ‘고향 방문 계획만 있다’는 응답이 39%, ‘고향 방문과 관광 여행 모두 계획하고 있다’ 1%로 우리 국민 40%가 고향 방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‘관광 여행 계획만 있다’는 4%, ‘둘 다 계획 없다’는 56%였다.

재작년(2013년) 설은 주말 포함 3일로 짧았던 탓에 1박 이상 일정으로 고향을 방문하려는 사람이 36%로 적은 편이었으나, 4일 연휴였던 작년(2014년)에는 43%로 늘었고 5일 연휴인 올해는 40%로 작년과 비슷했다.

▶ 설 연휴 고향방문 계획 (단위: %)



구분		표본수 (명)	고향방문만	고향방문 +관광여행	고향방문 (계)	관광여행만	둘 다 계획 없다
전체		1,003	39	1	40	4	56
성별	남성	496	40	1	41	4	55
	여성	507	38	1	39	5	57
연령별	19~29세	174	51	0	51	3	45
	30대	201	53	1	54	6	39
	40대	218	50	1	51	5	44
	50대	197	30	0	30	7	63
	60세 이상	213	11	1	12	2	86
거주 지역별	서울	205	34	1	35	3	61
	인천/경기	291	42	1	43	5	51
	강원	31	39	0	39	9	52
	대전/세종/충청	102	51	2	53	3	45
	광주/전라	102	32	0	32	6	62
	대구/경북	103	32	0	32	2	67
	부산/울산/경남	158	38	0	38	6	56
	제주	11	-	-	-	-	-

질문) 오는 2월 19 일(목)은 음력 1월 1 일, 즉 구정 설날입니다.

귀하는 이번 설에 1박 이상의 고향 방문이나 여행 계획이 있습니까?

(있다면) 고향 방문이십니까, 관광 여행이십니까?

*30 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. 한국갤럽

*고향 방문의 기준은 타 시도 이동이라도 1박이 아니면 제외, 같은 시도 내라도 1박 이상이면 포함.

설 연휴 고향 방문 계획을 연령별로 보면

결혼, 취업 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자녀 세대인 2040 세대는 약 50%로 높은 편이었고

자녀의 귀향을 맞이할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60 세 이상에서는 12%로 가장 낮았다.

그러나 작년에 비해 30대와 40대의 고향 방문 계획은 다소 줄었다(60%→54%; 60%→51%).

우리의 음력 설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‘구정’으로 불리다가 1985 년 ‘민속의 날’로 지정돼 하루 공휴일이 됐고 1989 년 비로소 ‘설날’로 개칭돼 전후 하루씩 총 3 일 공휴일이 됐다. 이번 조사 결과, 우리 국민의 92%는 ‘음력 설’을, 3%는 ‘양력 설’을, 3%는 ‘둘 다 지낸다’고 답했으며 ‘둘 다 지내지 않는다’는 응답도 1% 있었다.

초등학생에게 줄 세뱃돈으로는 ‘1만원’이 적당 53% (평균 17,100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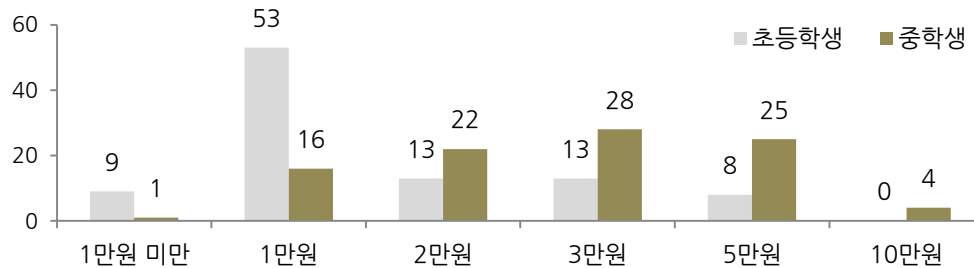
- 중학생은 ‘3만원’ 28%, ‘5만원’ 25%, ‘2만원’ 22% (평균 32,900 원)

세배는 정월 초하룻날에 하는 새해 첫인사다. 남녀노소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지낸 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을 한다. 이때 덕담과 함께 세뱃돈도 오가는데 세뱃돈을 주는 입장이라면 누구나 얼마가 적당한지 한 번쯤 고민했을 것이다.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?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바로는 초등학생은 1만원, 중학생은 3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가감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.

초등학생에게 줄 세뱃돈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물은 결과 ‘1만원’이 53%로 가장 많았고 2만원과 3만원이 각각 13%였으며 8%는 ‘5만원’을 답했다. 평균 금액은 17,100원이었다.

한편 중학생 세뱃돈으로는 ‘1만원’ 16%, ‘2만원’이 22%, ‘3만원’ 28%, ‘5만원’ 25%로 3만원이 가장 많았지만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의견이 분산됐다. 중학생 세뱃돈 평균 금액은 32,900원으로 초등학생의 두 배에 가까웠다.

▶ 세뱃돈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? (단위: %)



질문) 귀하께서는 초등학생에게 줄 세뱃돈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?

그럼, 중학생에게는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? (자유응답)

- 초등학생

구분		표본수 (명)	1만원 미만	1만원	2만원	3만원	5만원	10만원	의견 유보	평균(원)
전체		1,003	9	53	13	13	8	0	4	17,100
성별	남성	496	9	52	13	13	9	1	4	17,700
	여성	507	10	53	13	12	7	0	4	16,500
연령별	19~29세	174	8	48	12	16	8	0	7	18,300
	30대	201	11	48	11	17	8	0	4	17,900
	40대	218	4	59	16	16	4	0	0	16,700
	50대	197	10	57	14	10	7	0	2	15,900
	60세 이상	213	13	51	12	5	11	1	7	17,000

- 중학생

구분		표본수 (명)	1만원 미만	1만원	2만원	3만원	5만원	10만원	의견 유보	평균(원)
전체		1,003	1	16	22	28	25	4	4	32,900
성별	남성	496	2	16	19	28	27	5	4	34,100
	여성	507	1	16	25	28	23	3	4	31,800
연령별	19~29세	174	2	15	18	29	25	4	7	33,000
	30대	201	1	15	17	30	29	6	3	35,300
	40대	218	0	11	23	38	25	2	0	32,300
	50대	197	1	19	22	29	24	4	2	31,600
	60세 이상	213	3	19	29	15	22	5	7	32,500

*평균 금액은 100 원 미만 절사. 한국갤럽

‘작년 설에 한복 입었다’ 10% - 60대 이상 18% vs. 30대 3%

흔히 설날과 같은 ‘명절 풍경’ 하면 한복을 입고 친척 어른신을 찾아 뵙는 장면을 떠올리지만, 사실 최근에는 보기 드물다. 아마 그 이유는 한복을 입지 않아서일 것이다. 작년 설에 한복을 입었다는 사람은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했다. 세대별 차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설날에 한복 입은 사람을 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.

작년 설 명절에 한복을 입었는지 여부를 묻은 결과 10%만이 ‘입었다’고 답했고, 90%는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남녀 차이는 없었지만 세대별 차이는 있어 60대 이상에서는 18%가 한복을 입었다고 응답한 반면, 20대 5%, 30대는 3%만이 한복을 입었다고 답했다.

▶ 작년 설에 한복 입었는가?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 (명)	입었다	입지 않았다
전체		1,003	10	90
성별	남성	496	10	90
	여성	507	11	89
연령별	19~29세	174	5	95
	30대	201	3	97
	40대	218	12	88
	50대	197	12	88
	60세 이상	213	18	82

질문) 귀하께서는 작년 설 명절 때 한복을 입었습니까, 입지 않았습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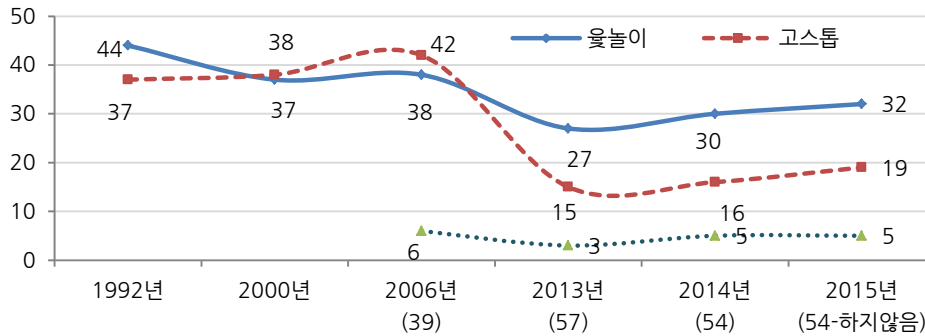
설 명절에 가족과 하는 놀이: ‘윷놀이’ 32%, ‘고스톱’ 19%

- 응답자의 절반(54%)은 가족, 친지와 함께한 놀이 없어

작년(2014년) 설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과 어떤 놀이를 했는지 묻은 결과, ‘윷놀이’는 32%, ‘고스톱’은 19%가 했다고 답했으며, 전체 응답자의 절반(54%)은 가족, 친지와 함께한 놀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런 명절 놀이 경향은 최근 3년간 조사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며, 2006년 조사와 비교하면 ‘고스톱’을 했다는 비율이 42%에서 19%로, ‘윷놀이’를 했다는 비율은 38%에서 32%로 줄었고 이에 반해 ‘가족과 놀이를 하지 않았다’는 비율은 39%에서 54%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.

▶ 작년 설에 가족과 함께한 놀이 (단위: %)



구분		표본수 (명)	윷놀이	고스톱	노래방	장기	바둑	기타	하지 않음
전체		1,003	32	19	5	2	2	2	54
성별	남성	496	28	22	6	3	3	2	54
	여성	507	35	17	5	0	0	1	53
연령별	19~29세	174	30	24	9	2	2	2	50
	30대	201	32	20	6	2	0	0	58
	40대	218	39	23	5	1	2	1	44
	50대	197	29	17	7	2	1	2	56
	60세 이상	213	27	13	1	1	2	1	61

질문) 귀하께서는 작년 설 명절에 가족, 친척들과 놀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?
(했다면) 어떤 놀이를 하셨습니까? (복수응답)

‘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’ 58%

- 50 대, 자영업자, 블루칼라, 주부, 생활수준-하층에서 ‘즐겁지 않다’ 40% 이상

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즐거운 일인지 묻은 결과 58%는 ‘즐거운 일이다’ 33%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즐겁다고 답했지만, 즐겁지 않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. 9%는 의견을 유보했다.

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‘즐겁다’는 응답은 특히 20대(79%), 학생(80%)에서 많았고, ‘즐겁지 않다’는 응답은 50대(45%), 자영업자(40%), 블루칼라(44%), 가정주부(41%)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.

설과 같은 명절은 명절 음식, 차례 준비, 장거리 이동 등 기혼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인식되어 왔다. 올해 설 역시 ‘즐겁다’는 응답은 남성(63%)이 여성(54%)에 비해 많았으나 ‘즐겁지 않다’는 응답에 대한 남성(31%)과 여성(35%)의 차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(2006년 ‘즐겁지 않다’ 남성 31%, 여성 50%).

이번 설 맞이 기분 질문에서는 생활수준 하층에서만 ‘즐겁다’(41%)보다 ‘즐겁지 않다’(49%)는 응답이 더 많았다. 경제적 어려움에 명절일수록 더 소외되는 이웃에 대한 보살핌, 한테 모인 가족 친지 중에서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즐거움의 정도가 다른 만큼 따뜻한 배려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.

▶ 설 명절을 맞이하는 기분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즐거운 일	즐겁지 않은 일	모름/ 응답거절
연도별	2002년	1,502	65	36	-
	2006년	1,502	59	41	-
	2009년	1,507	59	41	-
	2013년	1,515	51	37	11
	2014년	1,208	58	32	10
	2015년	1,003	58	33	9
성별	남성	496	63	31	6
	여성	507	54	35	11
연령별	19~29세	174	<u>79</u>	16	6
	30대	201	59	34	7
	40대	218	53	35	11
	50대	197	48	<u>45</u>	7
	60세 이상	213	55	33	12
직업별	농/임/어업	39	60	35	4
	자영업	129	51	<u>40</u>	9
	블루칼라	129	50	<u>44</u>	6
	화이트칼라	312	66	26	8
	가정주부	219	45	<u>41</u>	14
	학생	99	<u>80</u>	14	6
	무직/기타	76	62	30	8
주관적 생활수준	상/중상	86	59	28	13
	중	405	68	24	8
	중하	290	57	35	8
	하	212	41	<u>49</u>	10

질문) 귀하께서는 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,
혹은 즐겁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?